

## 사랑으로 사는 인생

인생에서 사랑이 없다면, 아마 상상이 안되는 질문일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생명력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사랑할 대상이 주어진다하는것은 곧 축복인것이다. 사람들이 남녀간에 사랑에 대단한 관심과 집착을 갖고 있는것도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하길 꿈꾸는것도 이러한 이유일것이다. 그러나 .남녀간의 서량이 이것을 충족시킬수 있는가! 아니다. 목숨을 걸것 같은 사랑도 곧 시들어지고 또다른 대상을 찾아 헤매는것을 보아도 알수 있을것이다. 남녀간의 사랑을 폄하하려는것이 아니라 사랑중에도 가장 순간적이기도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것이기도 하기에 생명을 소멸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력인 사랑을 끊임없이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 한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있기때문이다. 자녀를 위한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 ... 이 사랑이 생명력이라는 것을 알때는 더이상 그사랑이 무거운 짐이거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권리라는 알게 되며 이기적이나아니라 이타적이 된다. 그런 면에서 나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라는 마음이 든다. 사랑의 대상이 생기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나는 주위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생명과도 같은 세 딸들, 그리고 내가 많나는 재소자들, 그리고 청소년들 나는 이들과 늘 사랑에 빠지며 산다. 그 사랑은 그들의 존재가치가 내게 소중한게 느껴지게 하고 그래서 간절하고도 조심스런 마음으로 나의 최고의 마음을 전하고 정성을 드리게 하는 그 시간시간들을 통해 나는 생명력을 부여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내게 하나님도 또다른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을 선물로 주셔서 나는 그 사랑에 빠져서 사는 내가 참 즐겁다. 바로 시집간 딸이 낳은 2 달된 손주이다. 엄마같은 젊은 할머니라고 주위에서 엄청 놀림감이 되고있지만 할머니소리도 싫지 않게 만드는 내마음을 빼앗아버린 손주가 난 그냥 사랑스럽기만하다. 유스앤드 웨밀리 포커스의 상담해야할 많은일, 교도소 방문, 그리고 광야캠프, 유스갤러리아, 세미나 그리고 7080 콘서트까지 24 시간이 모자라 집에가서도 컴퓨터, 전화로 만만치 않은

생활에 손주 보기까지 겹쳐서 제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정도이지만 나는 마냥 행복하다. 나는 밤에 두번씩 일어나는 아기를 우유먹이고 얼르고 하다보면 잠을 설치기가 보통이고 새벽기도시간에 때로는 졸음도 간간이 찾아오고 오후 4,5 시쯤 상담시간에 피로의 기운에 나른해지기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집에 7,8 시쯤에 돌아오면 하루종일 시달린 딸은 이때다 싶어 엄마인 내게 아기를 안킨다. 내 피곤함은 제치고 제대로 밥도 챙겨먹지못하고 하루종일을 시달린 딸의 얼굴이 애처러워 보이는것, 그것이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일것이다. 이 사랑의 마음이 나를 또 생명으로 채우는 순간인것이다. 손자를 앓은 나는 그 천사같은 얼굴을 보는것으로 온갖 피로가 가시는것같다. 응석도 울음소리도, 내품에서 떨어질새라 침대에 눕히기만 하면 킁킁대는 모양도 모두가 다 사랑스럽다. 나는 이 생명력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손주의 볼을 수백 수천번도 넘게 뽀뽀를 해대는 할머니인것이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 인생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생에 대한 소중함과 열정 그리고 겸허함을 품게 하는 생명력있는 사랑, 이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살아가게 하고저 하나님은 우리주위에 사랑의대상을 짝 넣어 놓으셨다. 그 사랑에 얼마나 신실하냐 안하느냐로 인해 생명력을 공급을 받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선택인것이다. 나는 내주위의 허락된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사랑으로 반응하는가 라는질문은 분명 충분한 가치가 있을것이다.